



Ewha Medical School News

E
U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여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발행인·박혜영 편집인·박혜숙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전화·02-2650-5703~4 팩스·02-2653-8891 제 21 호 <2009. 09>

*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소식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과정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와 미국심장협회(AHA)가 승인한 BLS Training Site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9월 26일 토요일에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과정을 개최하여 8명의 BLS-HCP(Health Care Provider)를 배출하였다. 이번 과정은 의학전문대학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동일 과정이 10월 23일과 24일, 11월 20일에도 개설될 예정이다.

의료인 교육과정은 2005 AHA Guideline에 의해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AHA에서 제작한 DVD를 이용한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Provider 과정 교육 참여 후 당일 시행되는 3회의 Skill test와 1회의 Written test에 합격한 교육생에 한해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미국심장협회)에서 인증하는 영문자격증이 발급된다.

◆새터민 예비의사 OSCE/CPX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및 임상술기 교육

통일부와 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요청으로 새터민 예비의사를 대상으로 OSCE/CPX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및 임상술기 교육이 의과대학 B동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2009년 7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09년부터 도입되는 의사 실기시험(OSCE&CPX)에 대하여 동영상과 강의를 통하여 국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9년 8월 5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터민 예비의사를 위한 임상술기 교육이 진행되었다. 국시 실기 문항당 담당 교수가 새터민 예비의사에게 임상술기 교육을 일대일로 제공하였으며, 이날 교육에는 OSCE/CPX 소위원회 교수 7명 및 새터민 5명이 참석하였다.

◆PBL 워크숍



2009년 7월 10일(금) 의학대학 강의실에서 제 3차 PBL 교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PBL 워크숍은 PBL에 대한 발전된 개념을 공유하고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개최되는 것으로, PBL 수업의 개념과 원칙, 진행 등에 관한 강의와 소그룹 토의 및 Tutor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룹 토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9년 7월 10일(금) 의학대학 강의실에서 제 3차 PBL 교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PBL 워크숍은 PBL에 대한 발전된 개념을 공유하고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개최되는 것으로, PBL

◆OSCE 문항점검 워크숍

2009년 OSCE 문항점검, 평가 및 튜터링 워크숍이 7월 17일(금) 오후 4시 반에 의학관 B동 814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박미혜 교수(임상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의 2009학년도 OSCE/CPX 일정 소개로 시작되었고, 한재진 교수(의학교육부장)의 전반적인 국시 OSCE 시험에 관한 OT와 어은경 교수(임사평가소위원회 간사)의 공통채점표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 의학과 4학년 OSCE/CPX 시험

2009년 의학과 4학년 OSCE/CPX가 8월 12일(수)~14일(금)까지 3일 동안 의학관 B동 8층(BMSC, PBL-Room)에서 시행되었다. OSCE는 임상 실행력 평가의 한 방법으로 객관성에 역점을 두어 학생들이 일련의 station을 돌며 문항을 수행하게 하는 시험이다. 이번 OSCE에는 전체 92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나뉘어 한 문항 당 4분 30초씩 총 16개의 문항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CPX는 환자 진료를 모의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임상 술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본교는 서울-경기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어 컨소시엄 산하의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SP)들이 시험에 투입되었으며, 12명 한 조로 무작위 배정된 학생들은 한 사례 당 17분씩 총 6개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

◆해부학교실 "실험실 안전관리우수실험실" 선정

해부학교실(주임교수 한후재)에서 "실험실 안전관리우수실험실" 선정에서 최우수실험실(3위, 105.6점)에 선정되어 총장님으로부터 상패와 상금을 수여 받았다.

"실험실 안전관리우수실험실"은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제정된 것으로, 실험실 안전관리 위원회(위원: 대외부총장, 각 처장, 각 단과대학 대표, 시설과장)에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 학생 및 교수 소식

1. 교수 소식

◆이미애 교수,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내성 관련 유전자 변이 살핀 다기관 연구로

진단검사의학교실 이미애 교수가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연세대의대에서 개최된 제 12차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한국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균주의 클래리스

로마이신(darithromycin) 내성 23S rRNA 유전자 점돌연변이의 빈도에 대한 다기관연구' 라는 논문으로 2009년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치료 실패의 중요한 원인인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과 관련 있는 23S rRNA 유전자 변이가 각 연구기관에 따라 내성빈도와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기관 연구 논문이다.

◆최병욱 교수 'Brain' 올해의 우수 논문 선정



신경과학교실 최병욱 교수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조기 발병 중증 샤르코-마리-투스 질환과 후기 발병 경증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이란 제목의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Brain'에 '올해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논문 선정으로 최 교수의 논문이 피인용 회수 26회를 기록, Brain 저널의 SCI 점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데 따른 것이다. 최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손과 발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증세를 나타내는 화귀난치성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Charcot-Marie-Tooth)병의 원인이 되는 6개의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의 존재를 밝혀냈다.

최교수는 2004년 샤르코-마리-투스 환우들과 함께 '샤르코-마리-투스 환우협회'를 창설했으며 현재 한국화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정성애 교수팀, 국내 최초 항생제 유발 장염 독성 균주 발견 "항생제 오남용하면 장염 유행 위험"

- 국내 최초 Q27 균주 발견, 강력한 전염력과 높은 사망률로 악명 높아
- 한국 더 이상 항생제 유발 장염 안전국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항생제에 의해 장염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PCR 리보타입 Q27 균(Clostridium difficile polymerase chain reaction ribotype Q27)이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되어 한국이 더 이상 항생제 사용으로 유발되는 장염 발생 안전국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항생제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과학교실 정성애·태정현, 진단검사의학교실 이미애 교수팀은 지난 7월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학술지인 대한의학회(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지에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PCR 리보타입 Q27균에 의한 중증 항생제 관련 장염을 보인 한국의 첫 번째 사례'란 논문을 발표했다.

정성애 교수팀은 오씨(52.여)가 2008년 11월~2009년 3월의 불과 4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중증 항생제 유발성 대장염이 재발하자 환자의 대변을 채취해 중합효소 연쇄반응(PCR법: DNA 중합효소를 이용해 DNA의 양을 증폭시키는 기술)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균의 변종인 PCR 리보타입 Q27 균주를 확인하였다.

항생제 유발 장염이란 나쁜 균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가 좋은 균주도 죽여 보다 유해한 균이 장관 내에 자라서 발생하는 장염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기존에 국내에 알려진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은 항생제 사용으로 장염을 유발하나 기존 항생제를 중단하거나 경구 메트로니다졸이나 반코마이신을 사용하면 환자의 90% 이상 상태가 호전되는 일반 균주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Q27균주는 기존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의 변종으로 일반 균주에 비해 10배의 독소를 배출해 독성 거

대 결장이나 패혈 증을 유발하고, 강력한 전염력과 14%의 높은 치사율로 악명 높은 균주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Q27균주는 2002년 캐나다 퀘벡에서 처음으로 대유행하여 161명의 장염 환자 중 37명(23%)이 한 달 만에 사망하고 1년에 60명(37.3%)의 사망자를 냈던 균주로 이후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대유행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균주가 발견됐다는 보고 사례는 없었다.

정성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균주가 출현하면서 중증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장염이 유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무엇보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병에 걸린 경우에는 초기에 빠른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 의료원 동정

◆이화의료원,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수탁 운영

— 이대목동병원과 시너지로 치매 환자에게 체계적, 통합적 의료 서비스 제공



강서구청과 이화의료원은 지난 12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재현 강서구청장, 서현숙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위·수탁 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강서보건소 인근의 영창동 코이드빌딩에 위치한 강서구 치매지원센터는 오는 9월 개소 예정으로 치매 기본검진을 비롯해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재활 치료, 치매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치매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에는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가 내정되었으며 신경과 전문의,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

◆이대여성암전문병원, 'Freedom Against Cancer'

콘서트 성료

- 음악과 이야기 통해 암으로부터 자유와 희망 전해
- 여성암 환우와 출연진, 의료진 하나 돼 감동의 장 연출



이대여성암전문병원(병원장: 김승철)이 지난 25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암 환우 행복찾기를 주제로 진행된 'Freedom Against Cancer' 콘서트를 성황

리에 마쳤다.

암으로부터의 자유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열린 'Freedom Against Cancer' 콘서트는 가수 김현철이 사회를 맡았고 시크릿 재즈밴드와 가수 이은미를 초청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형식으로 음악과 함께 여성암 환우들과 이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의료진의 감동적인 사연도 소개됐다.

'서른 즈음에' 노래에 이어 서른 넷 젊은 나이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 힘들어 하던 때 의료진의 격려에 암을 이길 힘을 얻은 사연, '기억 속

으로' 노래에 이어 5년 전 암을 진단 받았으나 '난 죽지 않아' 라는 긍정적인 힘으로 8번의 항암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이겨내 지금 제일 건강하다는 환우의 사연 등 여성암을 이겨낸 환우들의 사연과 여성암 환우들을 한 가족처럼 걱정하며 간호해준 부인종양센터 간호사의 사연도 소개됐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환우들을 격려하기 위한 독특한 이벤트도 준비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콘서트는 환우들과 출연진, 의료진, 관객이 모두 하나가 되어 암으로부터 자유와 희망을 전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동창회 소식

◆“인권·의료 사각 이주노동자 등 도와야죠”

— 인권의학연구소 개소하는 이화영 소장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인권의학연구소이화영(50·사진) 소장은 국내에 '인권 의학' 개념을 처음 들여온 주인공이다. 이화여대 의대를 나와 중앙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던 이 소장은 미국 조지타운대와 국립보건원(NIH) 연구원으로 있던 2001년 9·11테러와 뒤이어 '테러와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국제분쟁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권운동을 펼치는 의료인을 찾아다니며 넓은 견문을 바탕으로 이 소장은 귀국 후 군사정권 시절 고문 피해자를 치료하는 상당 모임에 참여하는 한편, 해외 인권의학 서적과 국제 규약서 등을 번역했다. 2007년부터 의대에 인권의학 과목을 개설, 현재 연세대와 아주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 소장은 “방학 때 병원이나 의학연구소로만 인턴을 가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의료단체 등 다양한 선택을 하는 걸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소장은 기존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에 인권 피해자 프로그램인 '인권 클리닉'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소장은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클리닉이 대학병원에 생긴다면 정신과를 비롯한 여러 전문의들의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고, 의사들도 인권 피해자 치료 훈련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치료대상, 의료기관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클리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교류보고

우르겐치, 아직은 마른 땅



이화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진소희

학기 중 넘치는 학습량에 허덕이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처음 의전원에 오기위해 썼던 자기소개서에서는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가 되겠노라 다짐했

었는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화창한 날씨에 우울한 5월 어느 날, 의료봉사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수마감 5시간을 남겨두고 접하고는, 혹시 내게 갈급했던 초심을 되찾아주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우심코 지원하게 되었고, 이토록 엉겁결에 우즈벡으로 가는 길고도 짧은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기가 끝나고 출발 1주일 전까지도 우르겐치 의과대학 측에서는 초청장을 보내오지 않았다.(우즈베키스탄은 초청장이 있어야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봉사를 하게 될 곳은 '우르겐치'라는 타쉬켄트에서 약 천킬로미터정도 떨어진 시골도시였다. 그곳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 여정을 거쳐 곱박 사흘이 걸렸다.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더위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지만 세 개의 마을로 나뉘어 파견되기 전날, 숙소 식당에 모여 서로의 손가락을 열심히 짚어가며 혈당측정방법을 익히고 혈압측정방법, 요검사해석법을 배웠다. 시원한 수박도 잠시 제쳐두고 어서 빨리 우즈벡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싶어 했던 그 전날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한다.

“앗살로 말레이쿰!”

첫째 날, 우리 팀은 힘차게 인사하며 팍따꺄(?) 마을 보건소에서 검진을 시작했다. 여기저기 깨진 유리창에 의료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위생적인 모습에 놀란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낮은 환경에 적응하느라 허둥대며 자동혈압기를 설치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일을 처리해 나갔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선풍기는커녕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아슬하기만 했지만 말로 하지 않아도 '여기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손을 넣으시고요.', '혈압 재는 동안엔 말씀하시거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는 나의 눈짓과 손짓을 알아듣는 그들이 신기하면서 감동적일 뿐이었다.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긴 했지만 많은 걸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한국말이 튀어나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알아들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수두룩한 금니를 내 보이는 우즈벡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다.

둘째 날, 교수님께서 심포지엄 발표 때문에 팀에서 빠지시고 나는 간호사선생님과 자리를 바꿔 치과 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간단히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고 실전에 돌입! 구강검진을 끝낸 사람들의 이를 직접 닦아주며 잇솔질을 가르쳐주는 일이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일단 다른 사람의 이를 닦아 준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우즈벡 사람들이 이를 닦는 데에 익숙지 않아 구강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썼었지만 '아~ 하세요.' 하고 입을 벌려 보여줄 때나 헛바닥을 닦는 걸 가르쳐주려고 혀를 내밀 때는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니, 이를 닦으면서 튀어나오는 침은 물론이요, 각종 음식을 세례를 피할 수 없었다. 그래도 행복했던 것은 그들이 시원하다고 좋아할 때나 내가 시범을 보이고 해보라며 손이 칫솔을 쥐어줬을 때 곧잘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슴 속까지 들어와 뭉클했다. 우즈벡의 정치상황 상, 악을 가져갈 수 없어 나누어줄 것은 많이 없었지만 칫솔, 치약, 거울, 우즈벡어로 번역한 팜플렛들, 우리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의 얼굴엔 분명 행복함이 묻어났다.

우즈벡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감사함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곳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쾌적함이 그곳엔

전혀 없었고, 당연하다 생각했던 교육조차 부족한 현실이었다. 무엇이 부족한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욕심이라고는 남들이 다 받는 팜플릿 하나 더 받으려는 마음?

헤어지는 날, 보건소장으로 있던 분이 떠나는 우리에게 말했다. 왜 당신들이 왔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앞으로 1년 뒤에도 그 뒤에도 계속 계속 와 달라고, 언제나 환영한다고. 그때도 답했지만 지금도 마음속으로 외친다. 'Of course!' 내가 될지 그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EMC는 또 그곳을 방문해 더 큰 사랑, 더 큰 희망을 나누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에게 우르겐치, 그곳은 아직 마른땅이었다. 여름엔 비가 잘 오지 않아 바닥은 마르고 말라서 차가 한번 지나가면 흙먼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은 너무나도 눈부셨다. 처음엔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더 가깝고 시급한 곳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여기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리고 확신한다. 언젠가 이곳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에도 축축한 빗물이, 풍성한 사랑이 그득하고 누구나 가고 싶은 그곳! 이 될 것을.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내과 홍영선

2008년 8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5일까지 정확히 1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다. 돌아온 지 이제 두 달도 채 안되었는데, 어느새 그곳에서의 생활이 희미해지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그 시

간을 좀 더 알뜰하게 잘 보낼걸 그랬다하는 아쉬움이 많지만,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1999년 펠로우 시절 혼자 지냈던 아이오와에서의 1년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덜 외롭기는 했으나, 매일 식사 준비와 집안일로 더 분주했고, 내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묵직해지곤 했다.

낮선 학교에 등교하면서 아이들은 한동안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고, 서울과는 달리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환경에서 답답해했다. 내가 근무한 곳은 UC San Diego 캠퍼스와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 Veterans hospital이었다. 내분비내과의 과장인 Dr. Henry의 실험실에서 사람의 골격근 세포를 배양하여 여러 종류의 지방산을 처리한 후 세포내 지방 대사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나의 실험 주제였다. 병원과 실험실에 출입하기 위한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도 복잡해서 엄청난 양의 서류 작업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Dr. Henry와 함께 연구하는 Dr. Ciaraldi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 둘씩 결과들을 얻기 시작했다. 내가 샌디에고 생활과 병원에서의 일에 서서히 적응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미 미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각자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 생활과는 달리 샌디에고에서의 1년은 아이들과 같이 보낼 수 있었던 소중한 기간이었다. 물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눈에 거슬리는 것들 때문에 잔소리도 더 많이 하고 화도 자주 내게 되었으나 아이들을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샌디에고에서 사는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일 년 내내 좋은 기후이다. 나름대로 4 계절이 있어서 변화가 느껴지는 것은 하지만, 심한 더위나 추위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친구들을 따라 골프장에도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공은 제대로 못 쳐도 넓고 푸른 잔디에서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을 보는 시간이 많았다. 운전할 때마다 앞에 넓게 펼쳐지는 하늘은 참 매력적이었다. 실험실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종종 가까운 UCSD 캠퍼스로 나가곤 했다. 멋진 하늘과 밝은 햇빛 아래 잔디밭에서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도시락도 먹으면서 잠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한 착각을 하기도 했다. 샌디에고에 연수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나 UCSD에서 근무하시는 한국 선생님들을 만나 함께 식사와 수다를 나누면서 친해지는 기회도 되었다. 또한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맞는 동네 사람들을 사귄 수 있었다. 그렇게 사귄 친구들은 1년 동안 내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한국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니 영어 실력은 별로 향상되지 않았으나 정신적으로나 실제 생활에서나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를 쉬는 기간을 이용해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DC, 옐로우 스톤, 그랜드 캐년 등 다른 주를 여행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그때마다 부럽게 느낀 것은 미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노력이었다. 여행 다녀온 뒤 아이들의 소감은 단지 다리 아팠다였고 그들의 무감동에 번번히 실망하였지만, 그래도 나중에 여유로웠던 미국에서의 1년 생활과 그중에 가졌던 여행의 경험이 어느 한구석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기대해본다.

서울에 돌아와 중학교 3학년과 1학년인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시차를 느낄 틈도 없이 정신없이 지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샌디에고에서의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다. 처음 정착할 때부터 순간순간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힘이 돼 주었던 샌디에고 소망교회 분들과 그곳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번 주말에는 잊지 말고 안부 메일을 보내야겠다. 내가 생각해도 별로 맛있는 음식에 크게 불평하지 않고 잘 먹고 쑥쑥 커준 아이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잘 지내준 남편, 기도 가운데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신 부모님, 힘들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쉼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해준 한국의 친구, 영혼의 양식이 될 좋은 책들을 부쳐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께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리고 싶다.

♣ 알려드립니다 ♣

◎소식지 원고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www.ewhamed.ac.kr>) 내 의과대학소식 / 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이화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